



JT코리아  
플롬 아우라 공개  
전자담배 판 흔든다  
니



Life

한미약품그룹  
체질개선 시동  
전략·투자 전면  
L2



# 고성능 EV부터 로봇까지... 뉴욕 사로잡을 K-모빌리티 출동

## ‘뉴욕 국제 오토쇼’ 3일 개막

현대차, 북미 36종 신차 순차출시  
휴머노이드로봇 공개... 기술력 과시  
기아, 2세대 셀토스 미국 최초공개  
제네시스, 고성능 EV 경쟁력 강조

폭스바겐, 풀체인지 아틀라스 선보  
닛산, ‘레트로 감성’ 스포츠카 공략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북미 시장 공략에 집중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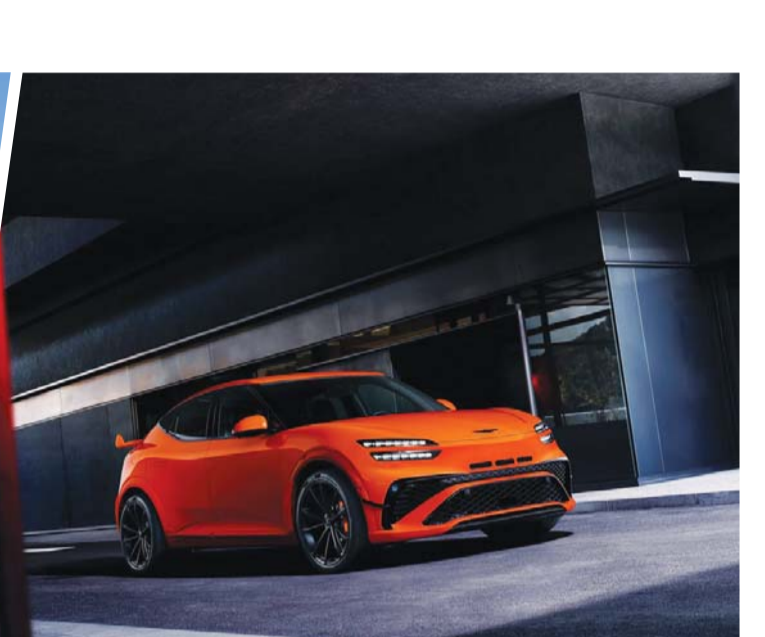
현대차와 기아는 뉴욕에서 개최되는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북미 시장을 겨  
냥한 신차와 친환경차 라인업을 대거 공  
개한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북미 시장  
에서 36종의 신차를 순차적으로 출시하  
는 등 공격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  
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3  
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  
맨해튼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2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가  
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하이브  
리드차 등 북미에서 수요가 높은 차종을  
중심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아는 2세대 ‘셀토스’를 미국 시장에  
처음 공개하며 소형 SU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셀토스는 2024년 북미 출시 당  
시 6만1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  
으며 이후 꾸준한 판매를 이어오며 소형  
SUV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2세대 모델 공개로 북미 소형



기아 디올 뉴 셀토스.



제네시스 GV60 마그마.

SUV 시장 공략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고성능 전기차 ‘GV60 마그마’를 통해 전  
동화 라인업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 등으로 전  
기차 판매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성능 전  
기차에 대한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다져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 2016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리  
고 있다. 지난해 8만2331대를 판매하며  
첫 연간 판매 8만대를 돌파했으며 누적  
판매 40만대도 넘어섰다.

현대차는 또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  
장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망을 논의하  
는 패널 토론에 참여해 미국 시장과 전  
동화 전략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현대차는 고객 점점 확대를 위해 다양  
한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

오닉 5,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6N, 아  
이오닉 9 등을 활용한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이 직접 전기차의 주행 성  
능과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공개하고 미래 기술력도 강조할 방침이  
다. 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  
이나믹스의 4족보행 로봇 ‘스팟’과 휴머  
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전시장에 등  
장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  
다. 현대차그룹이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  
를 넘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으  
로의 전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번 모터쇼  
에서 신차 중심의 전시회를 이어갈 전망  
이다.

폭스바겐은 세계 최초 공개를 앞둔 2  
세대 대형 SUV ‘아틀라스’ 완전변경 모  
델을 공개한다. 이번 모델은 2017년 1세

대 출시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  
경 모델로 모든게 새롭게 설계됐다. 외  
관은 더욱 각진 형태의 전면 그릴과 헤  
드램프를 통해 근육질의 인상을 강조하  
며 최신 폭스바겐 헤리티지인 일자형 L  
ED 라이트 바가 적용된다.

닛산은 스포츠카 ‘Z’의 부분변경 모델  
을 선보인다. 이 차량은 레트로 디자인  
과 수동 변속기를 추가해 스포츠카 감성  
을 유지하며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스텔란티스는 미니밴 ‘퍼시픽’ 부분변  
경과 상용 밴 ‘프로마스터 시티’를 공  
개하며 실용 차종 중심 전략을 강화한다.  
스바루는 신규 전기차와 함께 ‘포레스터  
와일드니스 하이브리드’를 선보이며 하  
이브리드 수요 대응에 나선다. 이 외에  
도 제너럴모터스(GM)과 지프, 포드 등  
현지 업체는 물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대거 참

여해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번 뉴욕 오토쇼는 인공지능(A  
I) 로봇틱스와 자율주행 등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보다 소비자들의 구매와 직결되  
는 신차 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북미 시  
장에서 183만대를 판매하며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시장  
에서 전년대비 7.9% 증가한 98만4000대  
를 판매해 6.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주요 모델  
의 연간 판매 신기록 달성과 하이브리드  
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3년 연속 판매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2030년까  
지 북미 시장에 36종의 신차  
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연비효율에 승차감은 덤... SUV 차주 반한 ‘맞춤 타이어’

## 금호타이어 ‘크루젠GT Pro’ 출시 정숙성·제동 등 소비자 반응 긍정적 이전 모델 대비 청킹현상 ‘논란 無’

금호타이어가 지난 17일 프리미엄 S  
UV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신제품 ‘크  
루젠 GT Pro’의 초반 소비자 반응은 성  
공적이다.

금호타이어가 쏘렌토와 카니발 동호  
회 회원을 대상으로 올해 초 ‘크루젠 GT  
Pro’를 제공하고 1, 3개월 간격으로 체  
험기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해당 동호회를 중심으로  
제품 사용 후기 글이 하루 수십 건씩 올  
라오고 있다.

3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기아  
쏘렌토 공식 동호회’ 등에는 해당 제품



금호타이어 신제품 ‘크루젠 GT Pro’ 앞에서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의 정보와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글  
이 올라오고 있다. 1개월, 3개월 동안 체  
험한 내용을 정리했으며 한 이용자는 1

개월에 1만km 가량 주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해당 제품에 대해 정숙성  
과 뛰어난 제동 성능에 대해 긍정적인 평

가를 하고 있다.

크루젠 GT Pro 이전 모델인 크루젠  
HP71에서 발생한 고무뜯김(청킹) 현상  
에 대한 논란도 없는 상태다.

이는 금호타이어가 크루젠 GT Pro 출  
시 당시 강조했던 트레드웨어를 800까지  
강화해 마일리지 성능을 향상시킨 영향  
이 크다.

SUV 전용 브랜드 ‘크루젠’은 2013년  
첫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약 6530만본이  
판매된 금호타이어 대표 SUV 타이어 브  
랜드다. 크루젠 GT Pro는 그동안 기술  
력을 집약해 완성한 제품으로 정숙성과  
승차감을 강화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전저항을 낮춰 연비 효율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내 SUV 타  
이어 가운데 유일하게 에너지소비효율등

급(RR·회전저항) 2등급을 획득했다. 특  
히 모든 규격에서 미국타이어타이어 트  
레드웨어를 숫자로 표기한 품질 기준인  
UTQG 마모지수 800을 확보해 경쟁 제  
품 대비 마일리지 성능을 20% 이상 개선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마모지수를 높여 타  
이어 수명은 길어졌지만 접지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모지수가 높은 숫자는 보통 고  
무가 단단해 제동력이나 승차감이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마모지수는  
500~700 정도는 사계절용이나 장거리  
주행 등 오래사용하는 제품으로, 100~  
200은 접지력이 좋은 스포츠·고성능 타  
이어로 분류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트레드웨어를  
800까지 끌어올린 만큼 빗길이나 포트  
홀 등에서 접지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슬  
립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  
했다.

/양성운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삼성 개막 직후 2연패...박진만 “세번  
째부터 밸런스 잡힐 것”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타율 0.077 부진 지속...  
팀은 연패 탈출 /사진 뉴시스

▲이천수, 0-4 홍명보호 겨냥 “팀 연습 없나...이  
해하기 어려운 스코어”  
▲홍명보호, 4월 1일 새벽 오스트리아와 평가전...  
핵심 공격수 전원 투입

▲남자배구 삼성화재, 새 사령탑에 토미 킬리카이  
넌 前 대한항공 감독 선임  
▲LCK, 조세회피 논란 ‘롤러’ 박재혁 선수 징계  
처분 검토